

셋째, 인자와 성실을 대대에 지속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와 선하심은 그의 백성과 언약하신 '인자와 성실하심'을 지키심으로 증명됩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인자와 성실이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은 언약해서 쉬운 길을 만났을 때는 찬양하지만, 곤고한 길을 걸을 때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들이 모두 합하여 하나님의 길을 걷을 때는 백성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권고에서 빠져 나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고 견고히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궁정 안에 거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 도 ..... 인 도 자

찬 송 ..... 310장 ..... 다 갈 이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떡 담 ..... 가족중어론

주기도문 ..... 다 갈 이

# 2022 추석 기징예배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시136:1)



## 예배의부름 ..... 다 같이

추석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오늘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같이 추석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편 121편 1-2절)>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 찬 송 ..... 559장 .....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기 도 ..... 가족 중

## 성 경 봉 독 ..... 시 100: 1~5절 ..... 다 같이

- 1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 말 씀 ..... 감사의 이유 ..... 인 도 자

시편 100편은 '기쁨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이 애송되는  
시 중의 하나입니다.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있듯이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원어로 '토다'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가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지으신 것  
이지 우리가 세상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천지와 만물은 말할 것도 없  
고 세상 어느 것도 만들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우리를 보고  
좋아하셨고, 자녀요, 친구요,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참된 깨달음과 깨우침이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무엇을 행하며  
어디에 소망을 주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사실만으로 큰 행복입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 때 참 기쁨을 누립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양은 매우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양은 보호받기 위해 전적으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기르십니다. 여호  
와는 한량없이 자비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기르시  
고 친히 돌봐주시는 목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양은 한결같은 목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의 가르침이 없이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 자  
기의 목숨도 버리셨습니다.